

# 수의발전을 위하여는 相生의 노력이 필요한때

김창섭 농림부 가족방역과장

전국에 계신 수의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무지 끝날 기세가 보이지 않던 7월 윤달 여름 더위도 아침저녁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자취를 감춰버린 청명한 가을입니다.

모든 사물이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 가을!

그러나 풍요로움으로 넉넉하고 활기가 넘쳐야 할 이 계절에 우리 수의계는 어느 때보다 많은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 우려와 걱정의 대부분은 일선 수의사들의 수의정책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농림부 수의정책 책임자로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수의사 여러분!

지난 8월말 농림부에서 열렸던 “동물보호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때 일어난 개업 수의사분들의 집단 항의사태를 비롯하여 동물병원협회의 농림부에 대한 과격한 표현 등 최근 수의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살펴보면 농림부 업무에 대한 수의사 여러분의 불만이 많은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농림부 업무에 대한 여러분의 불만은 실상 우리 수의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수의정책에 대한 이해부족도 농림부와의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생긴 것으로 이 또한 저의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의사회지의 지면을 빌어 전국의 수의사 여러분께 농림부의 수의정책과 당면 현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제가 가축방역과장 직을 맡기 이전에 이루어 졌던 축산물가공업부의 농림부 환원, 농림부 산하기관인 동물검역소와 가축위생연구소의 통합,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설립 등 수의계 발전의 큰 핵이 되었던 사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지난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계기로 국무총리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등 7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4년 8월 「가축방역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축방역종합대책에는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사육단계부터의 제도개선과 인력 · 조직 및 예산 확충, 국경검역 강화, 동물보호 · 농촌지역 개업수의사 확보 등 전반적인 과제를 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수의직공무원 120여명이 신규 채용되었으며, 금년 3월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내년부터 공익수의사를 선발, 일선 현장에 배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도 축산물 안전성 및 동물보호업무 강화를 위한 수의인력 86명이 증원되었고 「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와 등록제 시행 등으로 수의사의 업무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5월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외국유학생의 국내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내 우수한 수의인력이 양성되도록 하였으며, 금년 1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의과대학의 신설 또는 수의과대학 정원 조정시에는 반드시 농림부와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수의과대학의 신설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추진과정중에 어려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막아내었고 수의분야의 우수성과 진가를 타 부처는 물론 언론 등을 통해 국민전체에 알리는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서는 서비스분야에서 우리 수의사들의 미국 진출을 돕고자 면허상호인정협정(MRA)을 우선원칙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수의사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이하 ‘국건수’)’를 주축으로 한 수의사들의 청구로 수의사법상 ‘자가사육동물 진료허용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이며, 동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농림부에서는 기각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 수의사분들은 이러한 농림부의 조치가 곧 수의사의 전문성을 부정한 것이며, 축산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국민의 건강은 등한시 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여러분!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농림부의 기각 요청은 '자가사육 동물에 대한 진료허용' 조항이 헌법에 위배됨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결코 수의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가진료허용은 유례가 없다는 일부 수의사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 선진국에서도 사육자(Owner)에 대하여는 수의사의 진료권과 별개로 인정되고 있으며 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에 대하여 수의사처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도 요주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제도 도입을 위하여 이를 농림부제도개선 과제로 채택하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 국내 축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부는 수의사처방제도 도입에 앞서 금년 8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을 개정하여 동물약품판매관리 규제를 신설(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가축이나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항생제·마취제 및 홀몬제 등 약품 판매시 판매처 및 용도 등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의 개정이 농림부가 수의사처방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의사처방제도 도입을 위하여는 축산업계와도 합의를 유도하여야 하고 축산농가의 의식전환과 축사의 친환경적인 구조개선에 상당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였기 그 기간 동안 효과적인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개정한 것이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수의사 여러분!

수의분야의 업무는 크게 내다볼 때 대국민의 건강과 연계되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축산업과는 불가분의 공생관계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축산업을 발전은 곧 수의업계의 발전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수의업계의 고객위치에 있는 축산업계의 이해와 설득 없이 일방적인 수의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2년 주의용동물약품에 대한 수의사 사용지시서제도 도입을 포함한 「주의용동물약품 취급요령 제정」과 「약사법」 개정 추진이 무산된 것도 실례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의업계의 어려움 못지않게 축산업계에서는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부족과 진료비 부담에 따른 축산업 경영악화 등을 주이유로 수의사처방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산업동물 분야로의 수의사진출 확대와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산업동물 권역별

진료센터 설립 또는 일본의 NOSAI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의사 여러분!

최근 들어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분야의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많은 수의사들이 노력하고 행정·연구·학계와 관련단체 소속 수의사들도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몇몇 수의사들의 옳지 못한 처신과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농가의 불신은 물론 선량한 수의동료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소리가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도시는 물론 대학과 정부기관 등에서 수의사들의 신장세가 눈에 띄는데 반하여 위축되어가는 다른 분야의 질시에 의한 오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수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제 앞에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공익 수의사 제도 도입에 따른 공수의 제도의 존치 필요성”, “개업수의사와 방역본부 방역요원 업무 분담”, “수산동물 진료권”, “농촌지역 개업수의사의 활성화”, 정부방역사업계획에 의한 “예방접종, 채혈업무 수행”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수의사 여러분!

세상은 너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고 한예로 우리 행정부도 4급 이상부터는 수의직 등 기술직 렬을 통합하여 특정직의 독점을 없앴으며, 수의과학검역원의 주요 보직도 외부인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봐도 자기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 성을 쌓고 버티는 무리는 멸망을 자초하였고 진취적인 사고로 업무를 개방하고 경쟁하는 무리는 흥하였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당장 큰 변화를 이룰 수는 없으나 수의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힘겹더라도 우리 축산업의 큰 축이신 수의사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우리 모두 상생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